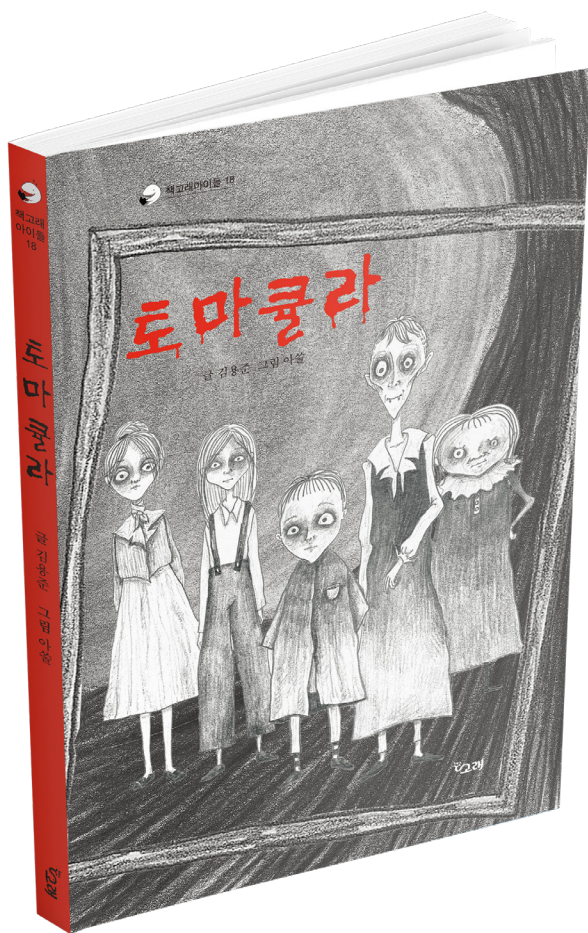


초등
5~6학년

책고래
책이랑 놀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토마쿨라

글 김용준 / 그림 아쉴

책 읽기는 ‘놀이’ 다

‘독서’와 ‘책 읽기’, 이 두 단어에서 오는 무게감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이들에게 “독서 할까?”라는 말보다는 “책 읽을까?”라는 말이 더 정감 있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각자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독서’는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든다. 독서 일기, 독서 목록……. 의무감과 책임감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다. 반면 ‘책 읽기’는 가벼운 느낌이 든다. ‘꼭 읽어야 해!’가 아니라 ‘한번 읽어 볼래?’하는 마음의 자유로움이 강조된다.

여기에 ‘함께’라는 단어를 붙여 보자. 자유롭게 ‘함께 책을 읽어보는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시행 이유일 것이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한 권’이라는 양의 의미가 아닌 ‘읽기’라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읽기 행위를 통해 재미를 느끼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책 읽기는 다양한 방법과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책과 친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고래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책을 읽을까?’를 연구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을 발간하게 되었다. ‘책 읽기’는 곧 ‘놀이’다. 놀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작가, 등장인물, 선생님, 친구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해 간다. 그래서 책 읽기는 단순히 독해력 향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마음을 읽어가는 소통의 좋은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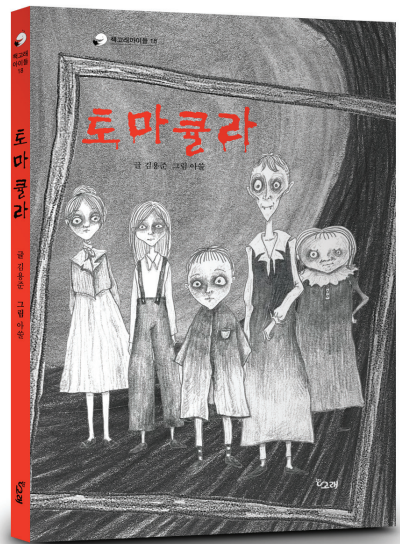
학년, 중학년의 책 읽기는 재미와 경험의 다양성이 함께 해야 한다. 책 내용과 비슷한 경험 활동을 해 봄으로써 책과 일상생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학년의 책 읽기는 공감을 통해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타인’을 통해 ‘나’를 보고, ‘나의 생각’이 ‘타인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 가는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요즘 행해지고 있는 ‘온작품 읽기’는 작품을 온전히 다 읽어 봄으로써 공감하고 소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책 속의 다양한 길을 혼자도 걸어 보고, 함께 걸어보면서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혀 가다 보면 읽기의 즐거움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그 즐거움의 길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지도안’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심중수(어린이책 작가, 한국어 강사)

토마쿨라

글 : 김용준 / 그림 : 이솝



☆ 학년군 5, 6학년 중심 국어

[독서 단위] 경험을 살려 작품 감상하기

- 작품 속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 이야기를 읽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어 본다.
- 경험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힌다.

☆ 책소개

드라큘라와 토마토의 공통점은 ‘빨강’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피 대신 빨강게 익은 토마토를 먹는 ‘토마쿨라’가 우리 앞집으로 이사 온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공포의 흡혈귀가 아닌 인간적인 토마쿨라의 모습에 외로운 케이는 친근함을 느끼고 다가간다. 그런데 뒷집에 담임선생님 탈을 쓴 진짜 흡혈귀가 나타났다. 케이의 피를 빨아 몸을 빼앗으려는 낸시 선생님과 케이를 지키려는 토마쿨라의 한판 대결이 어둠 속에서 재미있게 펼쳐지는데 …….

학습 목표

‘귀신’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하지 마!’라고 하면서 공포나 긴장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공포 영화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 줄 단골 메뉴로 등장하지요. 《토마쿨라》 역시 우리를 공포의 롤러코스터로 안내합니다. 등장은 무섭지만 일상은 착한 토마쿨라와 등장은 예쁘지만 일상은 무서운 드라쿨라와의 만남. 그 속에서 가족 없이 혼자 남은 케이의 귀신 탈출기가 어떻게 그려질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1. 제목의 의미를 상상해 보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2. 인물의 처지에 대해 상상해 보고, 인물의 마음을 이해한다.
3. 인물이 겪은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대비해 보면서 이야기 나눈다.
4. 용기와 공감에 대해 생각해 본다.

독전 활동

책 읽기 전 나눌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책 그림과 제목 살펴보기

- 이 책의 제목인 ‘토마쿨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 앞, 뒤표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말해 봅니다.
- 표지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표정과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니다.
- 작품 속 삽화를 살펴보고, 소제목과 연관 지어 줄거리를 생각해 봅니다.

▶ 책 관련 상황 이해하기

- 세계에서 전해 내려오는 대표적인 귀신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 우리나라의 인신 공희 설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 용기 있는 행동의 사례를 찾아보고, 용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

▶ ▶ 케이이름 지은 ‘토마쿨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토마토를 먹는 드라쿨라

▶ ▶ 케이는 토마쿨라가 귀신인지 어떻게 알았나요?

: 우연히 찍은 동영상 속에서 사람은 안 보이고 겹옷과 들고 있던 토마토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을 보고

▶ ▶ 흡혈귀는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 주인이 들어오라는 허락이 있어야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 ▶ 토마쿨라는 왜 케이의 집에 침입했나요?

: 케이이름이 찍은 동영상을 지우려고

▶ ▶ 토마쿨라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요?

: 토마쿨라는 피를 빨지 않아서 몸에 피가 부족하데 길에서 헌혈하라고 붙잡는 아줌마들

▶ ▶ 케이는 낸시 선생님이 흡혈귀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 놀이동산 귀신의 집에서 거울에 비친 낸시 선생님이 여자아이의 팔을 물고 있었기 때문에

▶ ▶ 낸시 선생님은 왜 케이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나요?

: 자신이 살 방법인 인간의 피부를 얻기 위해서

▶ ▶ 토마쿨라가 케이에게 최면에 걸리지 않도록 가르쳐 준 방법은?

: 흡혈귀와 눈을 오랫동안 마주치지 말 것, 마늘을 목에 걸을 것

▶ ▶ 토마쿨라는 어떻게 흡혈귀를 물리칠 수 있었나요?

: 흡혈귀를 잡은 채 햇빛이 있는 창밖으로 같이 떨어졌다.



함께 할 수 있는 창의적 활동



▶ 귀신 이야기 만들기

- 모둠별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를 말해 봅니다.
- 가장 무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정해 제목, 인물, 사건, 배경을 각색합니다.
- 대본을 만들고, 이야기의 상황에 맞는 몇 개의 삽화를 그려 봅니다.
- 분장을 해 보고, 역할극을 통해 상황을 실감 나게 표현해 봅니다.

▶ 장점 별명 짓기

- 보통 별명은 ‘토마쿨라’처럼 외모나 이름, 행동에 따라 지어집니다. 별명을 들었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말해 봅니다.
- 별명에 대한 생각을 바꿔 선생님과 친구들의 장점을 적어보고 이야기해 봅니다.
- 선생님이나 친구에게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 주고, 왜 그런 별명을 지어 주었는지 발표해 봅니다.
- 안 좋은 별명을 들었을 때와 좋은 별명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느껴 봅니다.

▶ 용기란 무엇일까?

- 살면서 자신이 용기 있게 한 행동이나 비겁했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마음을 갖고 행동할지 생각해 봅니다.
- 당시의 자신에게 칭찬이나 위로의 말을 건네는 편지를 써 봅니다.
- ‘용기란 무엇이다.’는 정의를 내리고 친구들에게 발표해 봅니다.

▶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 집에 혼자 있는 주인공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자신의 경험도 떠올려 봅니다.
- 가족이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 주인공에게 위로의 편지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봅니다.
- 발표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 봅니다.



독서노트

책 제목

지은이

읽은 시기

줄거리

기억에 남는 한 줄

감상

독서노트

책 제목

지은이

읽은 시기

줄거리

기억에 남는 한 줄

감상

책고래 책이랑 놀자

책고래는 아이들을 위해 글 씨앗, 그림 씨앗을 정성껏 뿌려 함께 기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함께 기다립니다.



도서출판 책고래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12길 23-4, 301호(양재동, 동방빌딩)

TEL. 02) 6083-9234 FAX. 02) 6083-9236 / 홈페이지. <http://www.bookgorae.com>